나혜석, 일엽 스님 등이 머물던 곳

# 숱한 사연 묻고 새단장 된다

## 근 · 현대 예술인들 불심 담긴 명소
## 이응노 화백 손자 이종진씨 증여
## 수덕사, 문화공간으로 활용 계획

수덕사 일주문 바로 왼편의 수덕여관. 주인 없는 빈집으로 방치된 지 5년여 만에 수덕사를 새 주인으로 맞았다. 수덕사(주지 법정)는 1월 16일 이응노 화백의 손자 이종진씨로부터 수덕여관을 증여받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폐허로 버려져 있던 수덕여관. 알고 보면 엄청난 사연이 서린 '보물'이다.

수덕여관을 얘기할 때는 일엽 스님, 나혜석, 이응노 이 세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다. 한때 나혜석이 주석했고 이응노 화백이 머물렀으며 일엽 스님이 속가의 아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오는 곳이 바로 수덕여관이다. 여관 현판도 이 화백이 직접 쓴 것이다.

일엽 스님뿐일까? 수덕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찾아왔던 가족들도 아마 이곳에서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수덕여관은 세간과 출세간의 가운데 놓인 '인연의 가교'가 아니었겠는가.

신여성이자 여류화가 나혜석은 1937년부터 1943년까지 말년을 이곳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나혜석은 작품활동을 하며 선승처럼 수행자처럼 단촐하고 조용하게 살았다. 출가를 하지 않았지만 승복을 입으며 무소유 · 무애행을 실천했다고 전한다.

그가 출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일화가 내려온다. 하나는 당시 출가해 수덕사 견성암에 머물던 일엽 스님을 찾아가 출가할 뜻을 비쳤으나 무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덕사에 주석했던 고승 만공 선사가 몇 번이나 찾아온 나혜석에게 인연이 아니라며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암 이응노 화백은 인근 홍성 출신이다. 이 화백의 생가와 수덕여관은 차로 10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이다. 이응노 화백은 선배였던 나혜석을 만나러 오면서 수덕여관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수덕여관에 드나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944년 여관을 사들였다.

1958년 후배 화가인 박인경씨와 함께 프랑스로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수덕사 부근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렸다. 이 화백은 수덕사를 드나들며 스님들과 인연을 맺었고 덕분에 수덕사는 의식 있는 문인 예술인들의 보림처로 많이 애용됐다.

이응노 화백이 프랑스로 떠난 후에 본부인 박귀희씨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여관을 운영했다. 2001년 박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 화백의 흔적과 정갈한 음식맛 등에 반해 수덕여관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일엽 스님이 일본에 남겨두고 왔던 속가 아들 일당 스님이 열네 살 나이에 현해탄을 건너 어머니를 처음 만난 곳이 또한 수덕여관이다. 일당 스님은 학생시절 모친을 찾아 수덕사를 방문할 때마다 수덕여관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당시 일엽 스님은 아들에게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고 스님이라 불러라"고 했다. 아들은 이후에도 어머니를 찾을 때마다 수덕여관에서 묵었는데 나혜석은 마치 자식을 대하듯 일엽 스님의 아들을 보살폈다고 한다.

예술인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수덕여관은 여관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 충남도에 의해 1989년 도(道) 지정 문화재기념물 103호로 지정됐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해 12월 수덕여관을 '보존해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수덕여관을 수덕사에 증여한 이응노 화백의 손자 이종진씨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정취가 남을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수덕사에 요청했다. 수덕사 이인수 종무실장은 "등기 이전 작업을 마치는 대로 현재 논의 중인 문화공간, 템플스테이 등의 수덕여관 활용방안이 매듭지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사진/예산=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이응노의 문자추상 암각화 '눈길'

이응노 화백은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2년간 옥고를 치룬 뒤 69년부터 2개월간 요양을 위해 수덕여관에 머물렀다. 그때 작업한 것이 바로 수덕여관 뒤뜰 너럭바위에 남아있는 암각화이다.

두 개의 바위에 각각 나눠져 새긴 암각화는 '만물의 쇠하고 흥함'을 문자도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화백이 60년대 한창 빠져있던 문자추상을 보여주는 이 암각화는 한글 자모들이 풀어져 서로 엉키면서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큰 바위의 오른쪽 구석에는 보일 듯 말 듯 '이응노'라고 자신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다. 이 화백의 문자추상의 경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수덕여관을 찾는 이들의 눈길을 잡아끄는 작품이다.

# 가수 김종국 해인사 간 까닭은?

## 어린시절 살다시피 … 참배 후 장경각 불사 동참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과 함께한 가수 김종국씨.

종횡무진 방송가를 누비는 가수 김종국씨가 1월 12일 합천 해인사를 참배했다.

해인사를 방문한 김종국씨는 "할머니 댁에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가족과 함께 해인사에 왔다"고 말했다. 할머니 댁이 해인사 신부락에 있는 김종국씨는 어린시절 해인사에 살다시피 할 정도로 해인사와의 인연이 깊다.

1시간여를 해인사에서 머문 김종국씨는 법당과 장경각을 참배한 후 동판 팔만대장경 불사에도 동참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김종국씨와 차를 마시며 "일본 중국에까지 진출해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

배지선 기자

KBS 기획다큐

# 마음

KBS1TV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마음'(일 저녁 8시)을 통해 마음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검증작업을 벌인다. 1월 15일 방송된 제1편 '마음 몸을 지배하다'에서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첫 회에서 정의한 마음은 무엇일까. 바로 두뇌의 활동과 뇌에서 나온 전기신호이다. 22일 방송된 제2편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에서는 역도 장미란 선수 등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 변화를 보여줬다.

### 무의식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마음'은 앞으로도 네 차례에 걸쳐 마음과 무의식, 기억과 용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3편 '무의식에 새겨진 마음을 깨우다'(29일)는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하고, 제4편 '기억을 버려라'(2월 5일)는 대형 참사의 고통과 창의성 부족 등을 기억의 측면에서 해석한다. 제5편 '편안한 마음이 좋습니다'(2/12)는 이완과 명상을 통해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 가장 보편적이면서 위대한 심성인 '용서'를 제6편 '당신을 용서합니다'(2/19)에서 과학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 서공임 길상화 초대전

불자 민화가 서공임씨가 2월 5일까지 한국일보 갤러리에서 길상화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견도', '신구도' 등 개 그림 20점과 용 호랑이 닭 등 십이지신도 20점이 함께 선보인다. (02)724-2613

## 고암 정병례 전각전

고암 정병례 전각전이 2월 5일까지 서울 팔판동 갤러리 진선에서 열린다.

'길상'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길상집' '적복' '까치와 호랑이' '오봉산일월도' '삼족봉황'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길상문을 집안에 걸어놓으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네 풍습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02)723-3340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4탄

현불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HE HYUNDAE BULKYO TRAVEL TEAM

인도불교성지순례(룸비니,니르바나,마하보디사원)

7박 8일 2월21일-28일 비자신청관계로 2월 10일 마감합니다 신청금 20만원 동참금 205만원

제1일 델리도착
제2일 델리, 럭나무, 스라바스티 고속열차이동 스라바스티 | 기원정사(사헤트)
제3일 룸비니 | 마야데비 사원 | 구룽못 | 아쇼카 석주 순례.
제4일 니르바나 사원 | 라마바르 홈무덤 | 다비터 순례후 바이샬리 | 파트나
제5일 나란다 불교대학터 | 죽림정사 | 영축산 | 빔비사라 감옥터 | 보드가야
제6일 마하보디사원 | 니련선하(Niranjana River) | 칠선처 | 금강보좌
제7일 갠지스강의 일출 감상 및 선상법회 및 항하사 순례 | 다메크 수토파 | 아쇼카석주 및 사르나트 박물관 견학 바라나시에서 국내선(비행편)이동
제8일 델리 출발 인천 도착

일본큐슈크루즈여행(구마모토,아소산,벳부,지옥온천)

4박5일 2월16일-20일 동참금 55만원

선박료,호텔및식사(선내식),관광입장료,부두세,항만세, 여행보험(1억원)가입,가이드및기사팀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제1일 KTX 15 서울 | 부산 시모노세키 향발
제2일 씨사이드모모치 해변 관광 | 다자이후천만궁 : (수험생어머니들의 합격기원으로 유명한 사원) | 구마모토 이동 | 구마모토성 관광
제3일 사루마와시 원숭이쇼 | 아소활화산 | 쿠사센리 | 유노하나, 해지옥, 지옥옥천순례 | 벳부만 전망대 관광
제4일 벳부 | 하모니랜드 관광 | 우사신궁 관광 | 시모노세키항
제5일 KTX 84 | 서울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el (02) 2004-8295 Fax (02) 2004-8296 으로 연락 바랍니다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발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에는 지난 1년의 불교계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 · 하 두권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큰스님 법문, 불교교리 및 다양한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로 참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주문 및 문의

- 구 성 : 상권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 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 격 : (상 · 하 2권) 총 80,000원 (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과년호 한정판매!!

-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 하권 )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2004-8211~2 | 팩스 (02)737-0697 | Email: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